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6.6(금) ~ 2025.6.12(목)

제공일시 2025 6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6.6(금) ~ 2025.6.12(목)

제공일시 2025 6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트럼프 “미중, 中의 희토류 先공급-중국학생 美유학 허용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최근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함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연합뉴스 2025.6.11\)](#)

2. 영국, 원전 건설에 대규모 예산 투입키로... 3.2GW 규모 사이즈웰C 원전에 26조

- 영국 정부가 지지부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건설이 공사 지연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 주도로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구상인 것임
- 9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사이즈웰C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142억파운드(약 26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사이즈웰C 원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178억파운드에 이르게 됨
- BBC는 “사이즈웰C 원전은 완공되면 약 6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프로젝트로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뉴스핌 2025.6.10\)](#)

3. 日정부, 美GE버노바와 손잡고 풍력 발전 국산화 추진

- 싱일본 정부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분사한 에너지 전문기업 GE버노바와 손잡고 풍력 발전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함
- 경제산업성은 GE버노바의 공장을 유치하고 이 회사와 일본 기업 간 기술 협력 등도 지원해 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풍력 발전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임. GE버노바와 협업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도 검토함
- GE버노바는 일본 최대 풍력 개발업체 유러스에너지홀딩스, 미쓰비시전기 등과 협력 각서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임

[\(연합뉴스 2025.6.8\)](#)

국내 정책

1. 高탄소 석유화학도 '스코프3' 시대 준비... 정부-업계 협의체 출범

- 탄소 다배출 업종인 석유화학업계가 '스코프3(Scope 3)'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음
-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 3사는 최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에 따라 석유화학 업종에 특화된 배출량 산정 가이드를 마련하고 기업별 산정 사례를 모아 민간으로 확산할 예정임
- 환경부는 해외 환경규제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원은 협의체 운영과 안내서 발간, 사례 홍보를 맡음
- 참여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의 스코프3 배출량을 자체 산정하며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게 됨

[\(해럴드경제 2025.6.10\)](#)

2. 유럽서 부유식 해상풍력 전방위 투자 유치 나선다

- 울산시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 에너지기업들을 찾아 지속 추진 타진과 협력 강화에 나섬
- 울산시는 11일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2025년 유럽 투자유치사절단'을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3개국에 파견함
- 사절단은 오는 20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조선, 이차전지 등 울산의 미래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외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직접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임
- 첫 일정은 12일 스웨덴에서 열리는 '2025 한-스웨덴 에너지 전환 포럼'임. 이후 울산 앞바다에 조성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주요 기업들이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잇따라 방문함

[\(울산매일 2025.6.11\)](#)

3. 민주,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발의... 이달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함.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것임
- 5일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당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힘
- 상법개정안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동아일보 2025.6.6\)](#)

글로벌 기업

1. 가솔린차 생산 늘리는 GM… 미국에 5조원 투자

-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내 공장 증설에 40억달러(약 5조5천억원)를 투자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것임
- GM은 10일(현지시각) 향후 2년간 모두 40억달러를 미국 미시간주, 캔자스주, 테네시주 등에 있는 3개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힘
- 지엠은 이번 투자가 마무리되는 2027년께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연간 20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한겨레 2025.6.11\)](#)

2. 아마존, 사람 대신 로봇이 택배 배달한다

- 아마존이 택배 배송용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IT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최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실제 배송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하기 위해 신규 시설을 건설 중임
-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중 한 곳에 ‘휴머노이드 파크’를 짓고, 곧 로봇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짐

[\(지디넷코리아 2025.6.7\)](#)

3. 印 타타모터스, 향후 5년 전기차 등에 5조원 쏟는다… “2위 현대차 추월 목표”

-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타타모터스가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개발 등에 5조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함. 업계 경쟁 상대인 현대자동차와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를 뛰어넘는다는 목표임
- 9일(현지시간) 이코노믹 타임스(ET)에 따르면, 타타모터스는 2026/27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까지 인도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16%로 끌어올리고 이후 2~3년 내에는 점유율을 18~2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뉴스핌 2025.6.10\)](#)

4. 美 주택용 태양광 선도자 선노바 에너지, 자금흐름 악화로 결국 파산보호 신청

- 미국 최대 주택용 태양광 기업 중 하나인 선노바 에너지 인터내셔널(Sunnova Energy International)이 89억달러(약 12조6400억원)의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함
-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각), 선노바 에너지가 미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 절차를 신청했으며, 핵심 자산 매각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함

[\(임팩트온 2025.6.11\)](#)

국내 기업

1. 삼성SDI, 유럽 테스볼트에 'SBB' 공급... "ESS 시장 공략 가속화"

- 삼성SDI가 안전성과 고에너지밀도가 강점인 'SBB'의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유럽 최대 상업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음
- 삼성SDI는 독일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
-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이달 말까지 자사의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SBB를 테스볼트 측에 공급하며, 테스볼트는 여기에 전력변환장치(PCS)와 사이버 보안시스템 등을 결합한 자체 ESS 솔루션을 생산, 설치할 예정임
- 특히, 두 회사는 이번 계약 외에 추가 공급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추후 ESS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함

[\(메트로신문 2025.6.11\)](#)

2. SK그룹, 베트남에 13조원 규모 LNG 에너지 허브 구축 나선다

- SK그룹이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전역 3개 권역에 걸친 액화천연가스(LNG) 전력·에너지 복합단지(SEIC)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총 투자 규모가 100억달러(약 13조 6780억원)가 넘음
- 북중부, 남중부, 메콩 델타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LNG 발전소를 핵심으로 하며, 각 지역의 산업과 에너지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파이낸셜뉴스 2025.6.10\)](#)

3. 두산에너지빌리티, 베트남에 1.1조원 규모 발전소 짓는다... 20년 묵은 숙원사업 본궤도

-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베트남이 20년 넘게 미뤄진 핵심 국책 사업 "블록-오몬 가스 발전 사업"의 하나인 오몬 4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참여한 한-베트남 연합체(컨소시엄)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따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음

[\(두산에너지빌리티 2025.6.8\)](#)

4. CJ제일제당 자회사 '셀렉타', 브라질 주정부 러브콜... 친환경 에너지 투자 '만지작'

- CJ제일제당 브라질 자회사 'CJ셀렉타(CJ Selecta)'가 현지 투자 요청을 받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 검토에 나섬
-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 투자청 주앙 파울로 브라가 국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지속 가능한 농업 비즈니스 포럼'에서 CJ셀렉타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만나, CJ셀렉타의 사업 계획과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함

[\(더구루 2025.6.10\)](#)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6.6(금) ~ 2025.6.12(목)

제공일시 2025 6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트럼프, 미국 최대 해상풍력 사업 재가동... 배경엔 '정치적 거래'

- 미국 해상풍력 최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명령 철회로 재가동에 들어갔음

-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뉴욕주와 연방정부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협상 진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각) 에퀴노르 앤더스 오페달 CEO의 발언을 인용해 "일자리 보호 논리와 뉴욕주의 가스 파이프라인 재협상이 중단 명령 철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음

- 엠파이어 윈드는 뉴욕 해안에서 30마일(약 48km) 떨어진 해역에 84기 터빈을 설치해 2.1GW 전력을 생산하는 50억달러(약 6조78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임. 브루클린 내 70에이커(약 28헥타르) 규모 항만 터미널 건설도 포함돼 있으며, 미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힘

- 하지만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더그 버건 내무장관은 엠파이어 윈드의 첫 단계인 '엠파이어 1'에 갑작스러운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음. 당시 사업은 이미 허가 절차를 마치고 시공에 들어간 상태였음. 에퀴노르는 즉각 위기 대응팀을 구성, 한 편으로는 '중단명령 철회를 위한 로비'를,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 중단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추진했음

- 노르웨이 정부도 적극 나섰다. 노르웨이 재무장관이자 전 NATO 사무총장인 연스 스톨텐베르그가 개입했고, 오페달 CEO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셋과의 면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음

- 오페달 CEO는 "연방법원 판결로 명령을 뒤집는 방식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길 원했다"고 전했음. 그는 특히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이 신규 사업 중단보다 인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음. 그는 "신규 프로젝트 중단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음

- 하지만 결정적 전환점은 다른 데 있었음. 바로,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협상 재개였음. 트럼프 행정부와 뉴욕주 간 갈등을 빚었던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 규모의 컨스티튜션 파이프라인(Constitution Pipeline) 사업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이 돌파구가 됐음. 해당 사업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뉴욕주·뉴잉글랜드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수질 오염을 우려한 뉴욕주 환경당국의 반대로 2020년 중단됐음

- 오페달 CEO는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가 직접 연락해 '행정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했다"며, "5월 18일 새벽 4시에 다시 전화가 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전해줬고, 다음 날 중단 명령이 철회됐다"고 말했음

- 일주일 뒤 컨스티튜션 파이프라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재추진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나왔음. 오페달 CEO는 "롤러코스터 같았던 사건"이라고 회고하며, "향후 미국 내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 착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팩트온 2025.6.9](#))